



이테크 칫솔홀더 '우리아이 수호천사'

게임하듯 양치 ... “칫솔질 방법 재미있게 알려주죠”

“게임하듯 양치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회사에 다니던 이창훈 이테크 대표는 어린 조카가 양치를 하기 싫어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친구 집이든, 친척 집이든 어디를 가나 양치를 시키려는 부모와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대표는 2016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료 4명과 창업해 지난해 8월 제품을 내놨다. 그는 “작년 12월까지 4개월 만에 매출 1억원을 올렸을 만큼 초기 반응은 좋다”며 “아이들이 양치 시간만 기다린다는 후기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 칫솔 그래픽 따라하면 ‘양치 끝’ 이테크의 ‘우리아이 수호천사’는 칫솔홀더 ‘올리’와 휴대폰 앱(응용 프로그램)이 세트로 작동하는 제품이다. 칫솔을 칫솔홀더에 꽂고 휴대폰 앱을 열어 블루투스 연결하면 된다. 앱을 열고 ‘양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속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고 칫솔 그래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실제 칫솔을 똑같이 움직이면 화면 속의 세

균 아이콘이 떨어진다. 칫솔꽃이 에는 모션 인식 기능이 들어있다. 이 대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올바른 양치 방법에 대해 자문한 뒤 제품을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화면을 따라가면 바깥쪽 윗니아랫니, 안쪽 윗니아랫니, 어금니와 혀바닥 등 9개 부분을 적정한

앱-칫솔홀더 블루투스 연결 화면만 따라해도 ‘양치 끝’

칫솔질 틀리면 점수 안올라 올바른 양치습관 길러줘

시간을 들여 닦게 된다. 이 대표는 “어금니를 닦을 땀 칫솔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속도가 맞지 않으면 세균 아이콘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특히 꼼꼼하게 닦게 된다”고 설명했다. 적정 연령대는 2세부터 8세다. 설정한 나이에 따라 칫솔질 시간 등이 조금씩 다르다.

▶ 제품 재미있게 만드는 데 역점 이 대표는 게임 요소를 집어넣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직접 개발하면서 제품을 재미있게 만드는 데 신경을 썼다. 양치가 끝나면 노래방 기계에서 점수가 나오는 것



이창훈 이테크 대표가 앱(응용프로그램) 화면을 따라 게임하듯 양치할 수 있는 칫솔홀더 제품 ‘우리아이 수호천사’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조아란 기자

처럼 ‘양치 점수’가 나온다. 한 부분을 잘 닦을 때마다 별점이 쌓이는데, 점수에는 이 별점이 반영된다. 칫솔홀더와 앱 화면에 사용된 캐릭터 올리는 이 대표가 직접 제작했다. 화면 배경과 배경 음악 등도 바꿀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정가가 4만원대로 비싸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한 개를 사 가면 다른 형제자매가 싸우는 일이 생겨 하나를 더 사갈 만큼 인기가 좋다”며 “아이가 커서 제품이 필요없게 돼도 양치 자체가 즐거운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는 데 좋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파는 칫솔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도 간편하다.

▶ ‘아동 브랜드로 키우는 게 목표’ 이 대표는 회사의 어린이 브랜드 ‘키즈아이’를 ‘핑크퐁’, ‘뽀로로’ 같은 유명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양치 제품인 우리아이 수호천사가 첫 번째 제품이고 두 번째 제품인 일반 칫솔 전자책처럼 읽어주는 기기는 이르면 오는 8월 출시한다.

그는 “어린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녀 한 명에게 쓰는 돈은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1월 으뜸중기 제품 △휴먼라인-마음을 맡기는 맨탈닥터 △아프로윈-웨어를 블루투스 스피커 △스마트사운드-임신부 필수품 스피커 △이테크-우리아이 수호천사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 시장의 성장성을 자신했다.

해의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외 박람회에서도 반응이 좋았고 특히 홍콩 매거소에서 인기가 많았다”며 “오는 2-3월에 독일, 미국, 중남미 등지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했다. 중국 소프트웨어 1위 업체인 뉴소프트(neusoft)와도 계약을 맺었다. 뉴소프트가 책 읽어주는 기기 사업을 중국에서 함께 하는 조건으로 현지에서 우리아이 수호천사를 홍보해주고 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새 정부, 중견기업 의견 배제 혁신성장 하려면 소통 늘려야”

강호갑 중견협회장 간담회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 성공하려면 지금처럼 중견기업을 배제 해선 안 된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견기업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다. 강 회장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물론 정책 혁신을 위한 공적 논의의 장에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중견연이 한 차례도 공식 구성원으로 초청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했다. 그는 “중견연을 법적 단계로 출범시키고 중견기업 정책을 추진해 온 공무원도, 정치인도 그대로인데 정책 혁신을 위해 중견기업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며 “불과 1년 만에 매출 636조원, 자산

770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비전이 완전히 소실됐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의 시대정신에는 공감하지만 ‘약자’를 보호한다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정치 및 사회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퇴행적”이라며 “논란이 되는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접해 도입 시기와 수준 등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일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일진그룹(회장 허진규)은 지난 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고객사 및 협력사, 임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허 회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으로 전진하기 위해 성공적인 혁신의 길을 찾고 고객사 및 협력사와 상생의 길을 걸겠다”고 말했다. 일진그룹 제공

20兆 면역항암제 시장에 도전장 낸 국내 바이오 기업들

국내 제약바이오회사들이 면역항암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1세대 화학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한 3세대 암 치료제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이들은 체내 면역력을 높여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다양한 암에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도 적어 고가에도 처방 환자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한양행, GC녹십자 등 대형 제약사들이 면역항암제 개발에 뛰어들었고 최근 중견회사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양바이오팜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면역항암제 기술인 ‘나노케이지’ 기술을 이

삼양바이오팜

나노케이지 기술 이전 받아

동아에스티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연구

보령바이젠셀

지난해 말 임상2상 승인

전받았다. 이 기술은 나노케이지 표면에 면역관문억제제 단백질 결합하고 나노케이지 내부에 항암제를 탑재하는 약물 전달 기술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이 기술을 활용해 면역항암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에스티도 최근 미국에서 열린 ‘JPMorgan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영국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면역항암제 공

면역항암제 개발 현황

기업	연구 내용
삼양바이오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면역항암제 기술 ‘나노케이지’ 이용 신약 개발
동아에스티	아스트라제네카와 세 가지 면역항암제 신약후보물질 공동 연구
보령바이젠셀	세포독성 T세포(CTL) 활용, 혈액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제넥신	면역항암제 ‘인터루킨7’ 중국 기술 수출, ‘하이루킨’ 국내 임상 승인

동연구 계약을 맺었다. 동아에스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연구 중인 세 가지 면역항암제 타겟에 대한 선도물질 및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물질탐색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동연구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지식재산과 특허는 공동 소유한다.

보령 제약 자회사 보령바이젠셀이 개발 중인 면역치료제는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보령바이젠셀은 혈액에서 채취한 T세포를 항원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CTL)로 분화, 배양시키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표적항원을 대상으로 CTLs 생산에 성공했고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2021년 임상 2상 완료 후 출시가 목표다.

지난달에는 제넥신이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항암제의 임상 승인을 받았고, 신라젠이 투자하기로 하면서 주목받았다. 제넥신은 작년 12월 중국에 6000억 원 규모의 면역치료제 ‘하이루킨’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 제넥신은 미국 관계회사 네오이뮤넥을 통해 미국 임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블록체인 기반 PC 주연테크, 국내 판매

주연 테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복잡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신제품 ‘크립토PC’(사진)를 출시했다.

블록체인은 최근 화제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공개 장부다. 바이어 등의 요청으로 해외 공급용으로 제작했으나 앞으로 국내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그래픽카드를 대상으로 한 크립토카드 6개를 적용했고, 시중 제품보다 쿨링 효과와 효율성을 높였다.

김희라 대표는 “앞으로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주문자 생산으로 방식으로 판매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10개국에 ‘한국중소기업聯’ 설립

중기중앙회,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등 아시아 10개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한국 기업들의 모임인 ‘중소기업연합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네트워크 출범 선포식’을 열었다. 글로벌 중소기업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에 국가별 ‘중소기업연합회’ 설립 추진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 호찌민에 ‘베트남 중소기업연합회’를 설립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지역과 대만 몽골 홍콩(중국) 등 총 10개국에 ‘중소기업연합회’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